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여운수(고려대학교)

세션명	워크숍4.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미래		
일시	2018.7.5.(목) 13:30~15:0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1 (9F)
참석자	사회	김경희(한림대학교)	발제
	패널	윤여진(언론인권센터)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민노씨(슬로우뉴스)	한석구(이용자)
플로어	약 30명 참여		

제안내용	<p>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미래는 사용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서비스 관련 논의는 정치권이나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사용자들은 배제된 채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터넷 실명제와 입법을 통한 아웃링크 및 댓글 규제 등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질되고 있음 <p>본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뉴스 서비스의 방향성과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한 미래 모습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기술 서비스를 어부지기는 부분은 결국 일부 그룹 또한 사람이고 이에 대한 윤리 의식 강화와 보편적 검증 기준 등의 사회적 성숙과 합의가 필요함 <p>결론적으로 국내외 뉴스 서비스 사용자 이슈를 점검하고 민간의 자율적 조치를 통해 실효적인 어부지기 제한 방안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참여와 편의성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시각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논의 진행
요약내용	<p>현재의 뉴스 서비스 환경은 잘못된 보도의 확대 유통에 용이하며 사람이 뉴스를 편집 및 배열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포털뉴스는 편리하며 신속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포털이 뉴스를 선별하여 호도하는 문제가 있고, 많은 트레픽을 유발하는 휘발성이 강한 기사 위주로 배열되는 단점을 갖는다.</p> <p>이에 기존의 뉴스 서비스 환경은 사용자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료화된 뉴스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줄이고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뉴스를 줄여 퀄리티 있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선택성을 높이는 구조로 포털이 개편 및 사회의 소수자들을 다루는 뉴스 또한 포함되는 구조로 변화하여야 한다. 사용자들 역시 포털의 구조에 대해 공부하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p>

논의 세부 내용	<p>I. 현재 뉴스 서비스 환경에 대한 패널 발언</p> <p>II. 질의응답</p> <p>III. 맺음 발언</p>
	<p>I. 현재 뉴스 서비스 환경에 대한 패널 발언</p> <p>가. 윤여진(언론인권센터)</p> <p>-포털 뉴스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잘못된 보도의 확대 유통 2. 사람이 뉴스 편집 및 배열 3. 진영 논리 존재 4. 마이너한 뉴스의 미확산
	<p>나. 한석구 (네이버 공론화 포럼 경험 이용자)</p> <p>-포털뉴스는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포털이 뉴스를 선별하여 제시한다는 문제점을 가짐</p> <p>-포털뉴스를 사용자에 맞추어 이용하게 하는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기업을 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2. 특정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끝까지 f/u할 수 있도록 보도되면 좋겠다.
	<p>다. 강민구 (이용자)</p> <p>-포털뉴스는 선별의 문제 등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과연 아웃링크로 대체되어야 할 만큼 문제점이 있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털의 선별성에 혼동될 만큼 국민들 의식수준이 낮지 않다. 2. 빅 데이터 3V(속도/양/다양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뉴스 활용에 용이 3. 이동성, 댓글을 통한 피드백, 다양한 언론사의 시각을 볼 수 있음
	<p>라. 민노씨 (슬로우뉴스)</p> <p>-트레픽 저널리즘의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의 입장에서 창작성 결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양성 결여 2. 많은 트레픽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휘발성 강함)를 보도해 순수한 보도성 없음 <p>-이용자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환경</p>

마.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포털 뉴스는 높은 접근가능성,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편익) 확장편향 등 시민의 알권리(권익)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있음

-언론의 신뢰확보의 중요성: 가짜뉴스 등을 통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

II. 질의응답

질문: 좋은 콘텐츠는 알아서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트레픽 저널리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은 트레픽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사용자를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답: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좋은 콘텐츠가 자연 많은 트레픽을 유발시키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포털 구조는 사용자로 정보의 홍수속에서 사용자를 미아로 만든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진정 관심있는 뉴스를 보게하지 않고 다만 길을 잃게 만든다. 내가 보고싶은 뉴스를 쉽게 선정하고, 공정하게 트레픽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선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트레픽 저널리즘이 구현될 것이다.

III. 맺음 발언: 건강한 뉴스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해야하는가?

가. 민노씨 (슬로우뉴스)

카카오 '스토리펀드'와 같이 유료화된 뉴스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줄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 등 휘발성 강한 뉴스를 줄여 퀄리티 는 뉴스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강민구 (이용자)

현재, 미디어 교육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어릴때부터 기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시민들은 포털의 편익성에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털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야한다. 흔히 말하는 top tear 포털에 들어가는

라. 한석구 (이용자)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편집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 좋겠다.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기자의 뉴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마.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수익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품질높은 뉴스를 양산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성을 높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성 소수자 문제 등 사회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가치들을 포함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라. 김경희 (한림대 교수)

깨어있는 이용자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